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남매 관계의 양상과 기능*

최지녀**

〈차 례〉

1. 서론
2. 인물의 개성화와 서사의 변주
3. 적장자(嫡長子)의 자리 다툼기
4. 가부장제의 질곡과 윤리적 감시자
5. 결론

[국문초록]

〈부장양문록(傅張兩門錄)〉은 가문소설의 성격을 띤 장편 여성영웅소설로서 주인공인 여성영웅을 무남독녀가 아닌 남매 가운데 누나로 설정하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일반적인 문법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설정은 남동생에게 특별한 소설적 지위를 부여하며 이 작품을 단편 여성영웅소설과 차별화하고 있다. 〈부장양문록〉의 남매는 대조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국면에서 개별적인 서사를 구성하면서 작품을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풍부하게 만든다. 본래 누이 장벽계는 '영웅형 인물', 아우 장원흥은 '군자형 인물'에 가까웠지만, 가부장의 역할을 하는 아우를 통해 누이는 점차 집안과 조정에서의 역할을 아우에게 내어주게 된다. 장원흥은 집안의 적장자이자 조정의 공신, 전장의 원수로서 누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장원흥은 훗날 장벽계가 여성임을 밝히고 혼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바 누이의 삶을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에 국한하고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인물이다. 곧 〈부장양문록〉에서 여성영웅의 남동생은 적장자의 자리를 두고 누이와 경쟁하고, 누이를 감시하며, 누이를 대체한다. 이러한 남매 관계 설정은 당대의 사회 윤리와 통념 안에서 여성 인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독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자 극복하기 어려운 가부장제의 질곡을 소설적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강의전담교수

[주제어] 부장양문록, 남매, 남동생, 여성영웅, 가부장, 적장자, 경쟁, 감시자

1. 서론

〈부장양문록(傅張兩門錄)〉은 부(傅)·장(張) 두 가문의 2대에 걸친 인물들의 활약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장편 여성영웅소설이다. 전형적인 양문록계 가문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표제와는 달리 이 작품은 주인공 장벽계의 ‘여성영웅적’ 활약과 이를 둘러싼 갈등의 전개 및 해소 과정이 서사의 근간(根幹)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부장양문록〉은 처음 학계에 소개될 때 여성영웅소설의 맥락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부여되었으며,¹⁾ 이후의 연구에서도 여성영웅소설의 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조망되었다.²⁾ 그러나 〈부장양문록〉의 다양한 등장인물과 사건 가운데는 주로 단편으로 유형화된 여성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에 포괄되지 않는 것도 적지 않다. 작품에 상당한 비중으로 등장하는 열녀형 인물, 늑혼 모티프, 겹사돈 모티프 등은 가문소설의 전형적인 요소에 속한다. 이에 다양한 인물 유형 및 작품의 구조, 특히 장편화 방법에 대한 고찰도 연구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³⁾

그런데 등장인물 가운데 여주인공인 여성영웅이 무남독녀가 아닌 남매 가운데 누나라는 사실은 장편 가문소설에서는 이채로울 것이 없지만 여성영웅

-
- 1)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 2) 이병직, 「〈부장양문록〉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최지너,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3)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06; 김정녀,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 방식: 〈부장양문록〉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8, 한민족문화학회, 2009;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정녀, 「〈부장양문록〉의 욕망 구조 연구: 남주인공의 욕망 실현 과정과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2010; 김나혜, 「〈방한립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논총』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등을 인물에 대한 고찰의 예로 들 수 있다. 장편화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로는 김태영,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서사의 확장과 장편여성영웅소설로의 전개」, 『겨레어문학』 66, 겨레어문학회, 2021 및곽성민, 「〈부장양문록〉의 다층적 성격과 장편화 방식」, 『한국문학논총』 92, 한국문학회, 2022가 있다.

소설로서는 꽤 예외적인 설정이다. 특히 〈부장양문록〉에서의 남매 관계는 주인공 장벽계를 중심으로 한 서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수한 소설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이러한 면모는 선행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나 심화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이에 본고에서는 〈부장양문록〉에 드러난 남매 관계의 양상과 그 기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남동생의 캐릭터와 행적이 가지는 효과와 의미가 드러날 것이며, 나아가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의 성격을 함께 지닌 〈부장양문록〉에서 여성영웅이 가부장제와 맺는 관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물의 개성화와 서사의 변주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대개 외동아들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은 영웅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소설 내적 필연성에 의해, 또 단편의 대중소설이라는 영웅소설의 장르적 특질에 의해 요청된다. 가령 〈유충렬전〉의 유충렬과 같이 ‘영웅’은 주로 만득(晩得)의 외아들로서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교적 짧은 편폭 안에서 주인공 1인 중심의 서사가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소설사적으로 볼 때 영웅소설의 하위 장르에 해당하는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 또한 외동딸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당위, 곧 여성이 남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여 문호를 회복한다는 서사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부모의 무남독녀라는 설정이 더욱 긴요하다. 이런 이유로 여성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의 남자 형제가 등장하는 경우는 희소하다. 〈석태룡전〉·〈이학사전〉·〈부장양문록〉·〈하진양문록〉 등은 그 드문 예에 속하는데, 이들 작품에는 모두 ‘여성

4) 최지녀, 앞의 글, 115~118쪽에서 〈부장양문록〉에서 가문의 적장자로서 남동생의 권위와 누이인 여성영웅의 자아실현 욕구가 충돌하는 양상이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심화·발전시킨 논의에 해당한다.

영웅'인 누나와 남동생으로 이루어진 남매가 등장한다.⁵⁾ 이들 남매의 탄생은 “일흠이 죠야에 진동흐며 일남일녀를 두엇시니”(〈이학사전〉), “부부 화락하여 자여 남미를 두어시니”(〈부장양문록〉)와 같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기술되어 있다. 곧 이들은 만득자가 아니며, 탄생이 특별히 신이하지도 않으며, 탄생 과정에 ‘기자치성(祈子致誠)’과 같은 특별한 노력을 수반하지도 않는다.⁶⁾ 이러한 사실은 상기(上記)한 작품들이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구조에서 얼마쯤 벗어나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자칫 ‘여화위남(女化爲男)’의 개연성을 해칠 수 있는 ‘남매’라는 설정이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우선 서사의 확장 과 다양성을 추구한 결과로 여겨진다. 등장인물 수의 증대는 서사의 편폭을 확장하는 결과를 낳으며,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성의 인물을 추가하는 경우 인물의 개성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하나인 〈음양삼태성〉은 세 쌍둥이 자매가 여성영웅으로 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 자매의 대화나 행동을 묘사할 때 자연스럽게 성격의 차이가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⁷⁾ 마찬가지로 남매가 등장하는 작품에서도 남매의 상이한 활약상을 통해 작품의 편폭이 확대되며 인물, 특히 여성영웅의 개성이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장양문록〉과 〈하진양문록〉이 남매의

5) 〈석태통전〉·〈이학사전〉·〈부장양문록〉의 여주인공은 모두 1남 1녀 가운데 장녀로 등장한다. 〈하진양문록〉의 주인공 하옥윤은 3남 2녀의 장녀로 설정되어 있지만, 형제 가운데 2남 1녀는 계모의 소생이며 부정한 행위로 모두 목숨을 잃게 되므로 1남 1녀의 장녀로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에서 참조한 작품의 텍스트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석태통전〉,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21, 아세아문화사, 1983; 〈이학사전〉, 김기동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1977; 〈부장양문록〉, 미도민속박물관 소장본; 〈하진양문록〉, 일본 동양문고본 세책본(『하진양문록』 I·II·III 이대형 교주, 이회, 2004)

6) 이 점에 있어 〈하진양문록〉은 다른 작품들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주인공 하옥윤의 부친인 하희지는 부인 윤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 주씨를 부인으로 새로 맞이하여 3남1녀를 얻은 후 다시 윤씨와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얻는다. 〈하진양문록〉에 등장하는 이복형제의 서사는 나머지 세 작품과 〈하진양문록〉 사이의 이질적인 요소이다.

7) 〈음양삼태성〉에 나타난 세 자매의 개성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여성영웅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작품과는 구분되는 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심성이 많은 언니 자주의 성격과 적극적인 동생 명주의 성격이 대조되는 부분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즈취 목연부담 하니 명취 경칙 디왈 고인이 운흐되 디스를 경영흠이 소소흐 혐의를 관렴치 말나 흐엿스니 (...) 저저는 다른 호의를 마르시고 디스를 결단하라”(김기동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7, 555-556쪽)

서사를 중심으로 확장된 서사를 전개하면서 장편에 달하는 분량의 작품으로 현존한다는 점, 〈이학사전〉의 이현경, 〈부장양문록〉의 장벽계, 〈하진양문록〉의 하옥윤이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 가운데 특히 개성적인 인물로 평가 받는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의 변화 내지 ‘장편화’에 있어 남매 관계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여겨진다.⁸⁾

〈부장양문록〉에서도 ‘남매’라는 설정은 서사의 부피를 증대시키는 한편 인물의 개성화에 기여한다. 〈부장양문록〉의 주인공 장벽계와 그 남동생 장원홍은 매우 대조적인 성품과 지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⁹⁾ 등장인물 소개에 해당하는 작품의 앞부분에서 장원홍과 장벽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즈의 명은 원홍이니 옥안미풍이 적선을 압두르고 치발 우등이나 극극여 경즈지 풍이오 여여 벽계 옥안의 흉난흔 용광과 일만 즈티는 강고를 기우려도 가히 대적 흐리 업고 천풍이 화려통달하여 규등의 틈 업고 금금히 군즈의 풍도와 영웅의 냇이 이시며 성효와 직덕이 고인성즈의 지나니 부피 최인관등흐미 장등보옥이오 그 미드미 바야히 비록 여지나 타일 문호을 창흐리라 흐더라(1: 1a)¹⁰⁾

장원홍을 묘사하는 ‘옥안미풍(玉顔美風)’, ‘적선(謫仙)’, ‘경자지풍(瓊姿之風)’ 등의 표현은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와 태도에 관련된 것이다. 곧 장원홍

8) 여성영웅소설로 분류 가능한 작품 가운데 오빠와 누이동생이 등장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영웅이 여동생이 아닌 ‘누나’로만 설정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여성영웅은 가문의 재건이라는 임무를 띠고 영웅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때 연상의 남자 형제가 존재한다면 여성영웅이 남장을 하고 활약할 명분이 확연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상기한 네 작품은 작품의 내용 및 형식의 특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가령 작품의 길이를 기준으로 할 때 〈석태통전〉과 〈이현경전〉은 단편소설의 범주에, 〈부장양문록〉과 〈하진양문록〉은 장편소설의 범주에 든다. 또 〈석태통전〉과 〈하진양문록〉에는 계모 모티프가, 〈부장양문록〉과 〈하진양문록〉에는 전생담 모티프가 동시에 나타난다. 한편 〈석태통전〉과 〈부장양문록〉의 남동생은 ‘전쟁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지니지만 〈이현경전〉과 〈하진양문록〉의 남동생은 그렇지 않다. 〈이현경전〉과 〈부장양문록〉은 특히 서사구조상의 뚜렷한 친연성을 보인다.

9) 이는 장부(張府)와 겸사돈을 맺게 되는 부부(夫府)의 남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오빠인 부계는 풍류가 강한 자유분방한 인물이며 여동생 부월혜는 극단적일 만큼 신념이 강한 열녀형 인물이다.

10) 이하 〈부장양문록〉의 원문 출처는 표기한 방식과 같이 ‘권수:면수의 순으로 간략하게 쓴다.

은 대체로 속기(俗氣)가 없는 결벽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에서 원홍의 인물됨을 말할 때 끌어오는 인물들도 대개 선비나 유학자들이다. 예컨대 안자(晏子), 제갈공명(諸葛孔明), 증자(曾子) 등이 그들이다. 한편 장벽계의 풍모는 ‘군자의 풍도’, ‘영웅의 모습’, ‘문호를 창달할 인물’ 등으로 영웅적인 자질을 소유한 인물임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장벽계의 화려하고 진취적인 기상은 장원홍에게 부여된 담박한 기질을 통해 대조적으로 부각되며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보가 다를 것임을 짐작케 한다. 홍노의 침략을 피해 피란하는 남매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두 사람의 자질은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먼니 못가 부인과 유약 소공지 불리 부룻고 산고협영의 능히 힘보틀 일우지 못호나 쇼제는 시연니 십이세로디 천칭품질이 금석갓고 날나미 가을미 갓호여 높흠 피 김흔 고을 표표 홀이 지나디 발 아리 듯글이 잇지 아니니 만심환회호여 던퇴주선을 쇼져와 상의호더니(1 : 71a)

높은 산과 험한 고개를 다니며 원홍은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벽계는 가을 매처럼 날렵하다. 또 고단한 행보에 원홍의 ‘발이 부르튼’ 것과 달리 벽계의 발은 ‘발 아래 티끌이 일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 두 사람의 기질은 확연히 대비되어 원홍은 ‘유약(柔弱)’하며, 벽계는 ‘금석(金石)’과 같이 단단하다고 기술된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의 장벽계는 남동생에 비해 신체적으로 월등히 강하며, 피난길의 ‘진퇴주선(進退周旋)’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원홍이 당시 12세였던 장벽계보다 어린 나이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원홍이 신체적으로 강인하거나 상황을 주도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다.¹¹⁾

11) 이러한 남매의 대비는 <이학사전>과 <하진양문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두 작품의 남동생은 모두 윤리적 지향이 강한 인물이다. 다만 <석태룡전>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석태룡전>의 남매는 계모의 구박을 피해 가출하였다가 헤어져 각자 전쟁 영웅으로 활약한다. 또 누이인 여룡은 남매가 재회한 후에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태자와 혼인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제외하면 남매가 함께 보낸 시간은 매우 적다. 특히 ‘여화위남한 상태의 여룡이 남동생인 태룡과 공감 혹은 대립하

이러한 기질의 차이는 난리 중에 헤어진 남매의 행로를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만든다. 장벽계가 부모 형제와 헤어진 후에 겪는 일련의 사건은 단편 여성영웅소설에서 전개되는 모티프와 매우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남장하여 가출한 후 고난을 겪다가 구원자를 만나 그 딸과 정혼한다. 이후 본래의 정혼자와 다시 조우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전공을 세운 후 결국 여성이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장벽계가 구원자를 만나 그의 딸 윤선강과 정혼한 일, 본래 정혼자인 부계를 만나 정체를 숨기고 우정을 나누는 일, 과거에 급제하여 전공을 세운 일 등은 모두 여성영웅소설의 전형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장벽계는 산야(山野), 조정, 전장 등의 공간을 이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동적인 이미지의 인물로, 장원흥은 한적한 곳에 일정한 거처를 마련하여 머물며 학문에 침잠하는 정적인 이미지의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차이는 유사한 상황에 대응하는 남매의 태도와 서사 전개에 차이를 불러온다.

(가) 부한님이 일일은 장후로 티학스의 번 드러다가 밤을 지닐시 당후는 썩을 그르지 아니하고 금이의 쓰러져 잠드러거날 부한님이 옷을 벗고 누으며 당후를 썩을시 “자원이 엇지 의디를 그라지 앓는뇨” 잠결의 놀나 이러 안지며 숙시양구의 왈 “소제는 본디 옷을 벗고 즈는 성품이 아니니 변요히 구지 말나” 금침을 밀치고 먼니 누으니 그 괴망흐를 탄혀 여 갓곳이 가지 못흐나 그 얼굴을 대하면 공연흔 정이 식압 솟듯 차마 써너지 못 자탄 왈 “자원이 엇지 내 마암과 다르고”(2: 39a~39b)

(나) “밤야 무인시의 은근흔 거름이 법답지 못흐시니 사류의 슈형의 크게 히로 올라 흐느이다 첩이 비로 무식흔느 군즈말 위혀여 행복지 아니 흐느이다 복망 군즈느 거름을 두루허심을 바라느이다” 언파의 열열흔녀 설상 혼 미화 취취를 두리지 아님 갓흐니 공즈 행복흐고 흡신흔녀 즐못흐물 일캣고(2: 74a~74b)

는 장면은 작품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곧 〈석태룡전〉은 남매의 서사를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여룡의 남장을 지연시키지 않음으로써 두 인물이 대비적으로 조망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가)는 장벽계가 여자인 줄 모르는 부계가 태학사에서 함께 숙직을 하는 대목에 해당하며 (나)는 술에 취한 장원홍이 정혼자인 부월혜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대목이다. 장벽계는 정체를 숨긴 채 정혼자인 부계와 벗으로 지내고 있었고, 장원홍은 늑혼을 피해 가출한 정혼자 부월혜와 우연히 만나 한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정혼자와의 동침’이라는 곤란한 상황을 맞았지만 장벽계는 남성으로 가장하고 있기에 오히려 태연하게 정혼자와 한 방에서 자야하는 처지이며, 장원홍은 도덕적 원칙을 넘어서는 욕망을 자제하며 한 방에 있기를 피해야 하는 처지이다. (가)에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자는 장벽계와 이를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섭섭함을 느끼는 부계의 상황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으며, (나)에는 술에 취해 부월혜의 처소를 찾은 장원홍을 매섭게 꾸짖는 부월혜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원홍의 모습이 진지하게 그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결국 정혼자와 동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가)는 남성의 세계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장벽계에게 어울리는 경쾌한 에피소드로, (나)는 윤리적인 인물인 장원홍에게 어울리는 교훈적인 에피소드로 전개된다.¹²⁾ 이와 같이 누나와 남동생이라는 인물의 병렬과 그들의 구별되는 개성은 ‘화소’(話素)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같은 소재를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3. 적장자(嫡長子)의 자리 다투기

한편 <부장양문록>에서 ‘남매’라는 설정은 여성영웅의 가문 계승의 문제를 첨예한 주제로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무남독녀 외동딸인 여성영웅이 스스로 복권시킨 자신의 가문을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성영웅소설 일반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다루어진 편은 아니다. <홍계월전>이나 <정수정전>, <김희경전> 등의 많은 작품에서는 이 문제를 도외시키고 있다. 다시

12) 이는 장벽계의 정혼자인 부계가 ‘풍류형’ 인물로, 장원홍의 정혼자 부월혜가 ‘열녀형’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점과 조응한다.

말해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영웅의 가문을 누가 이어받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한 결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가령 <홍계월전>의 계월은 실세(失勢)한 부친을 복권시키고 대원수로 무공을 세워 가문을 창달하지만 홍씨 가문을 계승하지는 못한다. 계월은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동문수학한 여보국과 혼인하기 전 “부모 슬하에 다른 즈식이 업서 비회를 품고 선영봉스를 전할 곳이”¹³⁾ 없음을 한탄하지만 결국 작품은 계월과 보국이 3남 1녀를 낳아 시가(媿家)인 여씨 가문을 부흥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계월의 부친인 홍무는 봉토를 받고 왕에 봉해지나 그 후사(後嗣)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허점을 의식하여 드물게 <이대봉전>과 같은 작품에서는 여러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사성(賜姓)을 받아 모친, 곧 여성영웅의 가계를 잇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부장양문록〉은 <이대봉전>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소설 내의 갈등 구조로 끌어들이고 있다. 곧 남성으로 위장하고 입신양명하여 맏아들 노릇을 해 온 누이와 아직은 미숙하지만 가부장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춘 남동생 가운데 누가 적장자(嫡長子)인가를 정리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석태룡전>과 같이 누이가 쉽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남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장양문록>과 같이 누이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남장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 이 대립은 첨예한 것이 된다. 아래는 이러한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집의 어린 짜리 공후 되녀시니 인스 대변흔녀 심스 설허히고 불안 빗치 좌우을 동허더라 가묘의 올느 비현홀시 당후 관복을 정제허고 형제 엇기틀 같와 누이가 니 승상이 당후을 물너기라 허고 부인과 소즈로 비현허고 물너 속소로 도라오믹

13) <홍계월전>, 신구서림(新舊書林), 1913, 34쪽.

14) 이와 관련하여 설화 문학에서 오누이의 대립은 한 집안, 나아가 인류의 계승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누이의 대립을 다룬 서사물에서는 대립이 오빠의 승리로 귀결되고 남성 본위의 계승 관계를 강화·확립하는 형태의 서사가 전개된다는 주장을 펼친 정제호, 「오누이 대립 서사의 전개양상과 계승의 문제」, 『한성어문학』 34, 한성어문학회, 2015의 논의가 참조된다.

당후 황송헌녀 방석 이뤘 감히 물너지 못하니 니우고 승상이 죄우를 물어치고
괴식을 업히 헌녀 당후 다려 일어나 곁오디 “네 녀화위남헌근 브득이 헌미오 부모와
국가 근심을 더러시니 감히 칙지 못헌려니와 다시 님군을 속이고 세상을 가리와
과장의 싸히며 둥작을 밧드며 조상 사당의 올는 신령 슨람을 아오라 속이미 그
죄 가빅읍지 아니헌느니라 아비되여 웃지 붓그럽지 안리요 장췌 네 몸 주체를
엇지 헌라 헌느냐?”(3:16b~17a)

장벽계는 17세에 과거에서 문무장원을 차지하면서 장승상의 맏아들이자 장벽계와 쌍둥이로 태어난 ‘장혜’로 행세하고 있었다. 장벽계는 부모 형제와 재회하기 전 남장을 하고 방랑하던 때의 정혼자인 윤소저와 부부처럼 지내면서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한다. 장벽계는 부친인 장승상이 부재하는 동안 유모가 맡아 지내오던 가묘(家廟)의 제사를 이어받고 집안을 돌보면서 적장자의 역할을 한다.¹⁵⁾

인용문은 적소(謫所)에서 돌아온 부친 장승상이 남매와 함께 가묘를 찾은 대목이다. 장벽계는 관복을 차려입고 남동생 장원흥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가묘에 배현(拜見)하고자 한다. 부친과 아우가 없는 동안 홀로 가묘를 돌보아 왔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영능후의 지위에 오른 장벽계는 장승상의 맏아들로서의 행동 양식을 체화하고 있으며 가묘 배현은 그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승상은 장벽계를 제지하며 ‘여화위남’하여 가묘에 배현하는 것을 ‘조상 사당의 신령과 사람을 아울러 속이는 죄’로 규정하고, 아들만 참례(參禮)시킨다. 장승상은 벼슬에 올라 장부(張府)의 맏아들 행세를 하는 딸의 행동에 두려움과 불안감 느끼다가¹⁶⁾ 결국 장벽계의 행위를 비난하고 적자의 자리를 빼앗는다. 장원흥에게만 ‘가묘 배현’을 허락한 것은 가

15) 쇼저의 유모 장상서 적거홀 적 유질헌기 처져 집을 직회고 가묘를 뵈셔더니 상서의 전기 합물헌 물 듯고 유아 호곡헌며 가손을 붓드려 다스리며 스시 향화를 쫓치지 안터니 (···) 구 세에 집을 썬는 만장풍과가 남은 몸이 십육의 도라오니 물식은 의구헌느 인스 덕변헌였시니 촉처의 비회와 가묘를 뵈시고 옛집을 슈세헌여(2:25a~25b)

16) 슈릭 우히 금포오스모로 언건이 안진 즈 북히서 영결헌녀 천인을 즈음쳐 늦기던 여인 벽계라 보니 받기미 미우을 동헌느 그 외람헌미 빅헌니 첩의홀시(3:10a)

문의 적통(嫡統)에서 딸인 장벽계를 배제하고 아들인 장원흥을 계승자로 승인하다는 의미이다. ‘가짜 아들’은 ‘진짜 아들’의 존재로 인해 만아들의 역할을 수행할 명분을 잃게 되고 남매는 암묵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가) “명일 진정쇼을 지어 올이고 관면을 드리며 조복을 버셔 부임을 마즈 전과을 스죄하고 일윤을 정히 흐라” 당후 머리를 두다려 슬피 비러 곱오디 “소녀 진정쇼을 짓고 인슈를 드리고 두문블출호오른 디인의 명디로 호오려니와 육년 남장의 당당흔 공후 분칠흔는 너즈되여 부한림의 슈건 밧드는 소님은 춤아 녹녹하고 갑갑흔너 못흐리로소이다 복원 아야는 어린 즈식의 구구흔 사정을 구버 슬피쇼셔” 공이 조련 항복밧지 못홀 즐 앗고 어히업서 침사 반향일너니 공즈 나아가 당후고 고왈 “소제는 준 소견의 싱각호물 부즈 형제 은은 휘치 못흐너 고흐느니 복원 형장은 당돌흔 죄을 용스호쇼셔 (…) 소제 형장을 위호야 슬허하고 근심호느니 볼근 세상을 속이지 못홀 거슨 음양이니 봉망 형장은 태산 갖흔 마음을 두루허 부스도를 조이 마즈 명교의 죄닌 되지 마르쇼셔” 당후 머리를 숙여 오릭 말이 업더니 희허 탄 왈 “내 몸이 육연을 남즈로 휘로천하호여 만군진동을 내 집갓치 나들며 몸이 공후되여 수플 갖흔 빅요 둥 일과 말이 막힌 곳지 업더니 일 소제의 직언명담의 할 말이 업서 이리 곤호뇨” 공즈 웃고 사죄 위로호니 승상이 아즈의 명쾌한 직언이 즈기 싱각지 못흔 비로 형의 말을 막으물 고틈이 여겨 쏘한 웃고(3 : 18a~20a)

(나) 형테 사미를 잇그러 서당의 나와 밤이 맛도록 공즈 의리로 간호니 당후 항벽호여 대답지 아니코 읍읍초창호다가 손을 드러 벽상을 쳐 탄식하되 “소제야 우형이 당당흔 공후지상으로 님군의 미드신 바오 사히 창싱의 바라는 비라 조정 빅요를 초기 갓치 보고 흥노만군도 가아미로 아라더니 니갓치 보느니 장한 뜻을 흘려 변호너 조련이 머리를 움쳐 남의 수건을 밧들나 호느뇨” 인하여 대화 불호여 균병을 박차며 빅옥 서안이 잔즌 호고 사창을 밀치미 나장이 무여지느니라 공즈 일변 불상흠과 송구 놀나 연망히 붓드려 위로할시(3 : 20a~21b)

(가)와 (나)는 부친이 장벽계에게 남자 노릇을 그만두고 부계와 혼인하라는 명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장벽계를 장원홍이 설득하는 대목이다.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완전히 거부하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장벽계는 관직은 포기하고 은둔하겠으나 혼인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나 있다. 정서 매우 불안한 상태로 변화하였는데, 여유 있는 태도로 부모 형제를 응대하던 과거와는 달리 ‘슬피 빌거나, ‘길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부친 장승상이 관직을 내어놓고 혼인할 것을 명한 날 밤, 장원홍이 밤늦도록 개유(開諭)하자 장벽계는 걱정을 드러내고 만다. (나)에서 장벽계는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손으로 벽을 내려치고, 병풍을 발로 차고, 서안(書案)을 부수고, 창을 밀쳐 나장(羅帳)을 무너뜨리는 폭력적 행동을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자기 욕망을 억압받아 극도로 불안해진 장벽계의 ‘광기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¹⁷⁾ 남동생 장원홍은 누이에 대한 주시(注視)와 끈질긴 설득을 통해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장원홍의 태도는 딸의 선택을 마지 못해 인정하거나 차마 선불리 꺾지 못하는 부모의 태도와 차이가 있다. (다)에서 부친은 혼인을 거부하는 장벽계의 뜻을 꺾지 못하고 ‘어이없어’ 한참을 고심하였다고 했다. 이 ‘어이없음’은 ‘인륜(人倫)’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딸의 선택을 저버릴 수 없는 부모의 난처한 심경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딸에게 베풀었던 부친의 관용은 아들인 장원홍의 개입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장원홍은 망설이는 부친의 앞에서 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마음을 돌릴 것을 설득하고 있다. 장원홍은 자신의 의견이 대단치 않으며, 자신의 행동 또한 당돌한 것이라며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으나 실상 그는 누이를 향해, 그리고 부친을 향해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펼쳐 나간다. 장벽계가 장원홍의 ‘직언명답’으로 할 말을 잃었다고 말하는 대목이나, 부친이 그가 ‘명쾌한 직언’으로 장벽계의 말문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대목 등은 장원홍의 논리가 두 사람에게 설득력과 위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장

17) 채윤미, 앞의 글, 34쪽.

원홍은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누이의 뜻을 논리적으로 제압하고 결과적으로 부친에게 자신의 능력을 시위(示威)하는 것이다.

특히 부친이 장원홍이 누이의 말을 가로막는 것을 기특하게 여기며 웃음 짓는 (가)의 마지막 대목은 적장자의 자리를 둘러싼 남매의 다툼에서 장원홍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부친이 그것을 인정하고 흡족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원홍은 음양의 이치, 곧 남녀가 유별하다는 유교적 윤리를 주장하며 부친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이를 누이에게 관철시켜 나간다. 장원홍은 부모와 형제가 부재하는 동안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제사를 이어 온 누이를 ‘명교(名敎)’, 곧 유교의 윤리에서 벗어난 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누이를 밀어내고 부계(父系)의 계승자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후 장벽계는 조정에 출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벗들을 초대하여 마지막 연회를 베푼다. 이 연회에서 장벽계는 “나의 아오 또한 도정의 느리니 나의 정을 이으라”(3: 23b)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장원홍이 집안의 적장자로서 뿐 아니라 조정에서도 장벽계의 역할을 대체하리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원홍은 장벽계가 부계와 혼인한 후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를 제수받게 된다. “장해를 규등의 감춘 후 즈연 침슈 불평하고 덩스의 난연터니 이데 경을 어드니 근심을 풀니로다”(4: 1b)라는 천자의 말은 장벽계의 역할을 장원홍이 대신하리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장원홍은 문무(文武)의 양면에서 누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천사(天使)로 떠난 부친이 호지(胡地)에서 생사가 불분명해지자 장벽계를 대신하여 출전하게 된다. 천자가 장원홍을 서생(書生)으로만 여겨 미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출전을 승낙하지 않자 장벽계는 상소문을 올려 장원홍을 지원하고, 도원수로 출전한 장원홍은 대승을 거두며 부친을 구한다. 부친은 문약(文弱)하다 여겼던 아들이 도원수가 되어 용맹을 떨치며 자신을 구원한 데에 감격하는데,¹⁸⁾ 이는 부친에게 있어 장원홍이 장벽계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게 되

18) 지란갓치 유약호여 테도와 강약이 부동호를 한호였더니 금일 향초의 바드러오므로 금석의 전강호를 붓고오 몸이 대원수 되어(5: 4a)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장원홍은 오랑캐에게 유폐된 부친을 구원함으로써 가문은 물론 국가의 ‘수호자’이자 ‘적장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된다.

4. 가부장제의 질곡과 윤리적 감시자

남동생 장원홍의 또다른 역할은 누이의 혼인을 성사시키는 적극적인 중개자라는 것이다. 장원홍은 장벽계의 소망에 반하여 정혼자인 부계와의 혼인을 주장하고 두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데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조 돈슈 직비왈 “형장의 말씀이 금옥갓하시느 (…)황제 형을 사랑하스 슬하의 정을 밋교져 하시미니 또한 영총이여늘 형이 관년흔 규슈로 누을 위방하여 슈절코져 하며 천지간의 무단히 폐륜하느 변고는 업논지라 형이 탐전의 드러가 무어시라 간하며 위업을 막고져 하시느잇가 쇼진의 구변과 와룡의 직조로도 면치 못하리니 서서히 심각하스 부스도를 조니 맛고 급흔 환을 면하소서” 당후 머리를 숙여 천스만상 하늘 아티셔는 과년 계교 궁진흔지라 나아가 부친과 궤고왈 “일이니 지경의 니러시니 혈마 엇지릿고 덕인의 교령을 숨가 봉형하리이다”(3: 44a~44b)

인용은 천자의 아들인 위왕이 장벽계를 후궁으로 맞아들이려 하고 부친이 위왕과 부계 가운데 한 사람과 혼인할 것을 장벽계에게 명하자, 장원홍이 부계와의 혼인을 통해 위왕과의 혼인을 피할 것을 권하는 대목이다. 장원홍의 태도는 자못 공손하고 차분하지만 누이를 ‘과년한 규수’로, 혼인을 거부하는 누이의 행위를 ‘천지간의 무단한 폐륜’으로 지칭하는 그의 말은 꾸밈이 없이 직설적이며 단호하다. 이와 같이 장원홍은 유교적 윤리와 부친의 뜻에 부합하는 말로 공격적으로 누이를 설득해 나가고, 장벽계는 이를 받아들여 혼인이라는 사회적 관습에 마지못해 순응하게 된다.

장원홍은 부친의 대리인이자 부친과 누이 사이의 중개자로서 조선 후기의

가부장제가 부여한 성 역할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장벽계를 제도 내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남매의 관계는 노골적인 대립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을 거부하는 장벽계와 혼인을 권유하는 장원홍의 입장은 명백히 정반대이다. 장원홍은 부친의 뜻은 물론 장벽계와의 혼인을 간절히 원하는 미래의 자형(弟兄) 부계의 뜻을 대리하여 발언하고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아버지·남편·남동생은 가부장적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가부장들로 그 안에 장벽계를 포섭하고자 하는 존재들이다. 일반적인 여성들과는 다른 삶을 추구했던 장벽계는 고립된 상태로 이들과 대응하였으나 가부장제의 견고한 구속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구속은 바로 남동생인 장원홍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로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원홍은 간곡한 끈기와 논리적인 언변으로 누이의 삶의 방식을 비판하고 유교적 규율에 순응시키고자 하였다. 가부장제의 바깥으로 이탈하려는 누이를 누구보다도 가까운 위치에서 제어한 장원홍을 작품 내의 윤리적 감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장원홍이 어린 시절부터 누이의 남다른 기질과 당대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에 대해 경계의 시선을 보내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옥안영풍은 즈안을 묘시하고 천품이 정디강직하고 증즈의 인효와 안년의 화평정직을 본바다 강보희아를 겨요 면흐며 혼 거름과 혼 말삼이 네의를 넘기미 업스니 부즈의 제즈 모침흐너도 제일좌를 사양치 아닐지라 (...) 복희 적소의 잇솔적 그 밋저의 너모 발월혼 괴상을 의리로 간흐면 소제 미미히 우을 싸람일너니(2 : 58a)

(나) 쇼데 원홍으로 더부러 쥬야 근독흐며 천문서와 육도섭약을 쥬야 숙독흐니 문당이 호호호여 강홍을 거후르며 귀신을 울닐디라 그 직조 법의 신이하든 회지 부싱흐니 밋지 못홀디니 필하의 쥬옥이 산산하고 농식 비등흐니 부피 두긋기는 가오디 근심호여 왈 “여즈되여 침션여공을 폐호고 남즈의 학문을 잠신희여 더욱 천문서와 병법은 여즈의 가죄라.” 쇼계 쇼이대왈 “쇼네 비록 여직 시세 만난 바

타인과 다르고 쇼네 연유하니 엇지 머리를 움쳐 여즈의 혐의를 생각해다가 만일 불행하면 당췌 엇지 헝리잇가? 한번 죽기는 가쇠오련이와 진실노 이 명교는 봉형치 못하리로서이다.” 부피 어히업시 녀여 바려두더라 소데 검무를 민드러 주야의 가만나 나아가 검무를 닉이 일취월쌍하여 브람을 타고 구름을 더위잡으로 올 듯 몸이 하늘의 가희 비회하여 가을 터럭 갖다가 도로 내려와 침소의 드러가 천년이 숙침하디 부모 적연이 모라더라(1: 6a~6b)

(가)는 장원홍이 부친의 적거지에서 생활하던 어린 시절부터 누이의 ‘발월한 기상’을 걱정하여 경계하는 말을 하였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북해 적소’에서의 장벽계의 생활은 (나)에 상세히 보이는데, 여기서 장벽계는 남성의 학문, 특히 병법과 천문에 침잠한다. 장벽계의 능력은 독서를 통해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검무(劍舞)를 창작하고 익혀 도술을 부리는 경지에까지 이른다. 남매의 부모인 장승상 부부는 이를 걱정하지만 여자의 도리를 생각하다가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는 장벽계의 말을 수용하여 딸을 내버려둔다. 그러나 함께 공부한 장원홍은 여공(女工)을 폐하고 남성의 학문과 기예를 익히는 누이의 ‘발월한 기상’, 곧 당대의 여성에게 주어진 성 역할에서 벗어난 지향에 처음부터 감시와 규제의 시선을 보내고 이를 표현하여 ‘의리로 간하고’ 있다. (가)에서 장원홍은 아이때부터 말과 행동이 예의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성인의 반열에 속하는 증자와 안연 못지 않은 인물로 묘사되는바 작품 속에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일탈을 규제하는 인물로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재회 이후 장원홍은 장벽계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기색을 살피고 부모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벽계가 벗을 불러모아 귀거래사를 음영하는 것을 들으며 남몰래 그 심중을 읽기도 하고¹⁹⁾ 천자에게 ‘본적상소’를 올린 후 절망한 누이를 찾아가 위로와 경계의 말을 늘어놓기도 하며²⁰⁾

19) 좌위 당후을 권하여 음영하여라 하니 당후 추스하다가 청음을 길게 섣혀 도원명의 귀거래를 음영하니 소리 응의청고하여 공산의 쇠옥성이라 좌위 계성하여 다 무심하되 공지 지고하디 불상하고 다형하여 하더라(3: 22b~23a)

20) 형장의 몸이 여지나 실이 근즈요 여등영웅이시여날 우흐로 성상이 사랑하시며 장녹이 규통의 밋

부친들 사이에 부계와 장벽계의 혼담이 오간 날 누이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일부터 윤소저와 장벽계의 거처에 가기도 한다.²¹⁾ 이러한 장면들은 장원홍이 장벽계가 여성의 삶을 거부한 작품의 처음부터 다시 여성의 삶으로 귀환한 순간까지 유교적 윤리에 기반한 감시자의 역할을 소설 속에서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여주인공의 ‘일탈’에 대한 규제, 혹은 장원홍이라는 인물의 설정은 독자의 기대지평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부장양문록〉은 가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경계에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의 독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진 바 없지만 개성적인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결구하는 방식은 가문소설의 독자들의 기호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²²⁾ 또한 〈부장양문록〉과 작품의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성격이 강한 〈하진양문록〉의 이본이 14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²³⁾ 현전하는 이본이 필사본 2종에 불과한 〈부장양문록〉의 주된 독자층으로 서민층을 고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²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필사기를 통해 〈부장양문록〉의 독자층을 조금이나마 좁혀보기로 하자.

(다) 무신 정월을 당하니 천금 갖듯 즈근 즈의 삼상이 도라오니 츄회라 울적
이동 중 위회가 될가 이권을 번셔흐나 우회도 [되지 안]호고 필법만 괴괴흐도다

고 부모의 미드시미 소제 우히어늘 엇지 통치 못흐시미 몸이 상토록 심각지 아니시고 조벽야은 경식으로 아여즈의 토티도를 진짓 흐시느닛가 복원 형장은 관회흐스 귀체를 보듯흐서 님군과 부모을 저바리지 마라소서(3: 32b)

21) 낭덕 급일 조용히 심곡을 여러 경회를 폐시니 소제는 준 소견으로 참예코져 흐느이다 윤소제 이러 좌정흐야 아연 소할 우리 형테 스이는 사제 아니라 부모 오시느 듯지 못흐리이다 잇썩 당후는 기제의 이르를 보고 스미를 드러 낫찰 덩고 잠알하여시니 공직 양저의 괴식을 탐관코져 흐여(3: 34a~34b)

22) 채윤미, 앞의 글, 77쪽.

23)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장 1절 ‘이본의 양상’ 참조.

24) 〈부장양문록〉의 이본은 연구의 저본으로 삼은 미도민속박물관 소장본과 규장각본이 있으며 후자는 권지일과 권지이의 일부가 필사된 나절이다. 〈부장양문록〉의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채윤미, 앞의 글, 1장 2절 참조.

(라) 무신 이월의 중손부하고 두리 번서호는 둘의 필법이 모두 괴괴호도다 그리 호여도 공은 만이 드러시니 훗자손의 일치 말고 잘 돌지어다

(마) 여동영웅과 부당 낭가의 열여 의귀 여즈의 설화와 복록이 무량하고 장소저 궁덕과 신기호 직조와 부소저의 절형은 만고 무쌍하고 윤소저 의귀와 첫 뜻 격희 미 기록호기 번서호여 즈손의게 전호니 아람다운 여즈를 즈시 보고 심등의 잊지 말고 명심호여 효절을 본호여 덕형 온전호게 호라 필직 추황 보시느니 우세홀 일 수괴수괴호나 상치 말고 앓게 보라

미도민속박물관 소장본 완질 <부장양문록>의 각권 말미에는 필사기가 있는데 (다)와 (라)는 각각 2권과 3권의 필사기에 해당한다. 필사자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조카며느리를 둔 것으로 보아 중년 전후의 여성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또 아들의 삼상(三喪)을 챙기며 소설책을 꾸준히 필사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분을 하층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는 규장각본 <부장양문록>의 필사기의 일부로, 인용한 내용만으로는 필사자의 성별이나 신분을 선뜻 단정하기가 어렵다. 책에 등장하는 여성을 모범으로 삼으라는 말의 뉘앙스가 여성인 듯한 인상을 주지만 남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효성과 절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상층 집단을 독자로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필사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부장양문록>의 독자가 서민층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²⁵⁾ 만일 <부장양문록>의 독자가 중상층에 상당히 분포해 있었다면 이들은 내외법을 무시하고 혼인을 거부하는 장벽계의 존재를 작품의 끝까지 용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독자들은

25) 사실 여성영웅소설의 주류를 이루는 단편을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여성영웅소설의 독자는 상층의 여성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 예컨대 <김희경전> 이본의 소장자 및 필사자로는 '柳弘燮', '洪白龍', '崔復得' 등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이 보이며, (정준식, 「<김희경전>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교육연구회, 2007, 239~244쪽) <부장양문록>과 <이대봉전>에는 '정소저', '이실', '중손부', '趙泰奉宅', '김문안집' 등 여성 소장자 및 필사자들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영웅소설의 독자는 적어도 성별에 있어서는 남녀를 고루 포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영웅소설의 독자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하층의 독자도 상당했을 것이다.

일면 여성에게 강요된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장벽계의 행동에 공감하기도 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성 역할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주인공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애초에 장벽계의 남장과 과거 급제, 전쟁에서의 활약 등 이른바 여성의 규범에서 이탈한 행위들은 표면적으로 충효열의 이념을 표방하고 이루어진 것이다.²⁶⁾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 이탈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는 당대의 사회적 윤리를 반영한 서사적 장치에 의하여 적절히 저지되어야 한다. 이에 유교적 가치를 체화한 인물이자 가부장제의 대리인으로 설정된 장원홍이 소설 밖 독자의 윤리적 가치관을 반영한 존재로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것이다. 장원홍이 누이를 윤리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누이에게 동정심을 느낀다는 점은 장원홍이 소설 밖의 독자의 정서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점을 암시한다.²⁷⁾ 독자들은 장벽계의 이탈과 자아실현이 주는 통쾌함을 동경하였지만 그것을 실현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금기를 준수하고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원치 않는 혼인을 하고 이전에 비해 부자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작품 후반부의 장벽계에게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⁸⁾ 이런 점에서 <부장양문록>은 당대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던 가부장제의 극복하기 어려운 질곡의 일면을 여성영웅이자 누나인 장벽계와 그 남동생 장원홍의 남매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어린 소견 양양서 도적을 막으른 부모을 위하미오 뒤진을 짓치른 국가 환을 탈미오 일양 남복을 벗지 못흐른 강포의 환을 두려하미오 다시 응과흐른 이 쏘한 부모을 위하미라 말일 소내 과시의 싸이지 아니시면 만세 황야 었지 구취의 방을 붓쳐 아야을 츠지리잇가(3: 17a)

27) 당후 추스르다가 청음을 길게 섹혀 도원명의 귀거라를 음영흐니 소리 응의청고하여 공산의 쇠옥 성이라 좌위 제성하여 다 무십하되 공직 지그하되 불살하호 다형하여 후더라(3: 22a~23a); 대화 불하어 급병을 박차며 복옥 서안이 잔존하호 사창을 밀치민 나장이 무어지느니라 공중 일면 불살 흘과 송구 놀나 연망히 붓드러 위로할시(3: 21b)

28) 다만 혼인 후에도 장벽계는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에 비해서는 공격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다. 조정 대신의 신분을 유지하며 정치와 외교에 참여하였으며 남편인 부계 및 남동생 장원홍과 정사를 함께 논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장벽계는 죽음을 앞두고 '그릇 여자가 되어 90여년 혐의로운 세상'(내 본디 옥경진인으로서 그릇 여주 되어 부후의 가모되나 천칭 옛 버시오 윤시는 나의 천년이 등하여 함과 나고 한가지 도라가시니 무살 흐하리오 구십여연 혐의롭던 세상이 이제 쾌활하도다, 5: 72a)을 살았음을 토로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작품 후반부에 나타나는 남매관계의 양상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바 후고를 기약한다.

5. 결론

소수의 여성영웅소설은 무남독녀의 남장과 ‘남성적’ 활약을 서사의 축으로 삼는 서사문법에서 벗어나 주인공을 남매로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다양한 사건을 파생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서 <부장양문록>은 대조적인 성격의 남매가 등장하고 이들이 다채로운 서사를 구성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본래 장벽계는 ‘영웅형 인물’, 장원홍은 ‘군자형 인물’에 가까웠다. 그러나 여장을 하고 남성의 영역에서 활약하던 장벽계가 헤어졌던 가족과의 재회 후 그 정체가 타인에게 점차 드러나면서 장벽계는 적장자로서의 자리를 점차 장원홍에게 내어주게 된다. 장원홍은 누이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점차 조정과 전쟁터에서까지 누이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는 장원홍이 누이에게 내주었던 적장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서사적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장원홍은 훗날 장벽계가 여성임을 밝히고 정혼자와 혼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바 장원홍은 장벽계의 삶을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으로 국한시키고 가부장제의 질서 내로 재포섭하는 윤리적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남매 관계는 <부장양문록>의 독자의 윤리적 감각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가부장제의 윤리와 질서 안에 있는 여성을 그려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인 동시에 극복하기 어려운 가부장제의 질곡을 소설적으로 재현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부장양문록〉, 미도민속박물관 소장본 5권 5책
- 〈석태룡전〉, 김기동 편, 『필자본고전소설전집』 21, 아세아문화사, 1983.
- 〈음양삼태성〉, 김기동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7.
- 〈이학사전〉, 김기동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1977.
- 〈하진양문록〉, 일본 동양문고본 세책본(『하진양문록』 I · II · III, 이대형 교주, 이회, 2004)
- 〈홍계월전〉, 신구서림(新舊書林), 1913.
- 곽성민, 「〈부장양문록〉의 다층적 성격과 장편화 방식」, 『한국문학논총』 92, 한국문화회, 2022.
- 김나혜,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논총』 56, 한국문화언어학회, 2012.
-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정녀,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 방식」, 『한민족문화연구』 28, 한민족문화학회, 2009.
- _____, 「〈부장양문록〉의 욕망 구조 연구: 남주인공의 욕망 실현 과정과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2010.
- 김태영,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서사의 확장과 장편여성영웅소설로의 전개」, 『겨레어문학』 66, 겨레어문학회, 2021.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 민족문화사연구소, 2006.
- 이병직, 「〈부장양문록〉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 정제호, 「오누이 대립 서사의 전개양상과 계승의 문제」, 『한성어문학』 34, 한성어문학회, 2015.
- 정준식, 「〈김희경전〉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Functions of Sister and Brother Relationship in *Bujangyangmunrok*

Choi, Ji-nyeo*

Bujangyangmunrok is a heroine nove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novel and the heroine is set as the older sister among siblings, not only daughter. This setting, which deviates from the general grammar of heroine novels, gives the younger brother a special fictional status and makes this work of a different nature from the short female hero novels. The sister and brother of *Bujangyangmunrok* are contrasting characters, forming individual narratives enriching the content of the work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Originally, the sister was close to a “hero” and her brother was close to a “man of virtue” but by her brother, who plays the role of a patriarch, she gradually gave up her role in the family and court to him. He replaces his sister’s role as the eldest son of the family, the contributor to the court, and the leader of the battlefield. In addition, he later plays a decisive role in revealing her identity and her marriage. So he can be said to be a person who limits the life of his sister to the realm of traditional women and limits the gender role. The brother of the heroine is a character who competes with and watches her for the position of the primogeniture and eventually replaces her. This brother-sister relationships reflects the reader’s intention to accept women in social ethics of the time and can be said to be a novel reproduction of the difficult-to-overcome patriarchal system.

Key words: *Bujangyangmunrok*, sister and brother, heroine, patriarch, primogeniture, competition, surveillant

논문투고일 : 2023년 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23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8월 23일

* Hongik University, Senior Lecturer